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67)(9/23/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8 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3 절

잠 3:17 -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갈 6:14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전 9:26 -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막 3:35 -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레 11:45 -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롬 8:17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3.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예술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잠 3:17).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 초연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무실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눈길을 주면, 예수님은 곧 당신을 떠나실 것이고,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쫓아내어서, 예수님이 당신을 떠나 버리신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로 갈 것이며, 다시 누구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은 삶은 너무나 서글프고 쓸쓸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갈 6:14).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편을 택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특별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해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삶의 순간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잊지 않는다. 권투 선수가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정확히 타격을 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일에 충실하며 그 일에 집중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전 9:26 -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다. **막 3:35 -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레 11:45 -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다. 갈 4:19 -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의 안과 밖의 성결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엡 4:17-20 -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엡 5:3-4 -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추잡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처럼 내가 져야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마 16:24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롬 8:17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 1:29 -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을 허락하신다. 롬 8:18 -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최악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다. 그 동행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결을 이루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펜데믹이 종식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단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